

나귀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스가랴와 다니엘에 나타난 메시아의 오심

By 탈 로빈¹, 사하르 S., 아세르 인트레이터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이성적인 질문은, 예수아께서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의 왕국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 13:24-33, 막 4:26-32).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고, 그 후에 외관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눅 17:20-25). 그 나라가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은 신약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된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2. 왕국 메시지의 열방 전파
3. 메시아 왕국의 지상 건립

이 세 단계는 **눅 22: 26, 46-47, 행 1:6-8, 행 26:22-23**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요?

1.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2. 메시아의 부활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3. 평화의 메시지가 열국에 전해지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대상이 없습니다.

이 세 단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께서 두 번 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구원을 위해, 두 번째는 공의와 평화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개념을 이방인들이 지어낸 것이며, 애초의 유대적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은 1) 스가랴서에(겸손으로), 그리고 2) 다니엘서에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메시아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습니다.

속 9:9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재림 때엔, 영광과 능력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반론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도 그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탈무드도 스가랴와 다니엘의 이 말씀들이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을 가리킨다고 인정합니다.

산헤드린 98, A면

랍비 조슈아는 두 구절을 대립시켰다.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말씀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말씀이다. 만약 그들이 가치가 있다면 그 분은 하늘 구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이 가치가 없다면, 그 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랍비 조슈아²는 위 다니엘과 스가랴의 구절들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존귀하다면,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영광으로 오실 것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메시아께서 스가랴서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여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2 성전이 무너진 70년 직전의 세대는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 조슈아의 논리를 따라), 메시아께서는 그 세대에 스가랴서의 기록처럼 올 수 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랍비들은 자신들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고, 이 구절들은 두 번의 오심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메시아의 한 번의 오심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놓고 탈무드도 스가랴와 다니엘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절이라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구절은 서로 다릅니다. 두 구절은 또한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신약의 ‘새’ 계시는 다니엘과 스가랴의 구절들이 한 번 오실 것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아닌, 한 메시아의 두 번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요 메시아가 둘인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예슈아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두 번 오십니다.

특별 광고!

예헤스켈³의 아내 오델랴⁴ 인트레이터가 6월 27일 예루살렘 스코푸스 산에 위치한 하다싸 병원에서, 딸 리샤이 탈리야⁵를 출산했습니다.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가 까맣고 눈은 파란, 3.18kg의 딸입니다. 히브리어로 리샤이는 “나를 위한 선물”, 탈리야는 “주님의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탈리야는 또한 아세르의 모친 나탈리를 기리며 주어진 이름입니다. 리샤이 탈리야는 아세르와 베티 부부의 첫 손주입니다.

MJAA⁶

펜실베이니아 그랜섬⁷에서 열리는 연중 MJAA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집회에 예배와 강의, 연합, 번영, 흥미와 교제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아들 솔로몬(프레디)가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Joshua²

Yeheskel³

Odeliah⁴

Leeshai Talya⁵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⁶

Grantham⁷